

부안 신재생 에너지 지원센터 개소

전라북도는 태양광 기술개발의 핵심역할을 할 <신·재생 에너지 소재 개발 지원센터>를 부안군 행안면 옛 고성초등학교에 임시 설립하고 5월23일 개소식을 갖는다.

총 사업비 86억원이 투입되는 지원센터에서는 산·학·연 공동으로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등 신·재생 에너지의 핵심소재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.

현재 22억원을 들여 일부 시설과 연구장비를 갖추었으며 2010년 부안 하서면의 신·재생 에너지 테마파크가 조성될 때까지 임시로 연구업무를 맡게 된다.

<화학저널 2007/05/22>